

집값은 뛰고... 전세는 없고 외지 투기세력에 서민 피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봉선동과 수완동 등 광주 일부지역의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다. 2년 전 광주 집값을 끌어 올렸다가 빠져나갔던 외지 투자세력이 다시 광주로 눈길을 돌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전경.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광주 일부지역 집값이 최근 갑자기 오르고 있다. 한동안 광주 집값을 끌어 올렸다가 빠져 나갔던 외지 투자세력이 다시 광주로 눈길을 돌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광주가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선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공급 시스템과 질 높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등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 3월부터 감소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전월 대비 0.02% 상승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뒤 9월에는 0.06%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84.96㎡의 경우 지난 5월 7억800만원(15층)에 거래됐지만, 10월에는 8억(14층)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9200만원(13%)이 올랐다.

광산구 수완동도 수완6차 대방 노블랜드 84.85㎡(6층)가 지난 2월 5억12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달리 10월에는 6억5000만원(6층)에 팔리면서 9300만원(18.2%) 올랐다. 두 아파트 모두 불과 5개월 사이 1억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최근 매매를 증가했던 봉선동과 수완동 일대 공공주택가들은 "매물로 나왔어도 거래가 없어 나가

광주 집값 코로나 이후 하락하다 봉선동·수완동 중심 다시 올라 집값 오르자 매물도 푹 떨어져 실수요자들 피해대책 마련 시급

지 않던 '급매'를 비롯한 상당수 물건들이 6월부터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고, 거래의 80%는 외지에서 온 '갭 투자자'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봉선동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3월 48건→4월 57건→5월 56건 등 한달 평균 53.7건을 기록하다가, 6월 128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7월 114건→8월 68건→9월 92건→10월 149건 등 5개월간 월 평균 110.2건으로 지난 3~5월에 비해 105.2%나 급증했다.

수완동 역시 3월 13건→4월 14건→5월 21건으로 월 평균 16건에서 6월 40건→7월 33건→8월 51건→9월 47건→10월 56건 등 월 45.4건으로 183.8% 증가했다.

이처럼 집값이 갑작스레 오르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탓에 매물이 사라진 것은 물론, 봉선동과 수완동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이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집값 상승에 전세 가격마저 올라 실거주자인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주의

전세수급지수는 196.1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 9월 기준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3453만원이었고, 평균 전세가격은 1억7217만원이었다. 광주는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26.6%(6236만원)에 불과해 급작스런 집값 상승은 전세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국에 동일 적용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방 인구가 대거 유입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수도권과 달리 광주는 투기세력에 의한 아파트 선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아파트 수요에 맞춰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 높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의 과도한 상승 억제가 필요하다.

광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지 갭 투자자 등 투기세력에 의해 광주 집값이 오르는 등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현재 집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 현상이니 만큼 시일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광주 집값 폭등 당시 뒤늦게 투자가 나섰다가 손해를 본 지역민도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트럼프
"큰 승리"
바이든
"안 끝나"



미국 대선 혼돈...우편투표 법적다툼 우려

미국 대선 개표에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승리'를 주장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도 개표가 끝나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우편투표를 염두에 둔 듯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 당선자 확정 시 지연되는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0시 50분께 트윗을 통해 "우리가 크게 이겼다"며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밤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큰 승리!"라고 언급해 사실상 승리 선언을 예고한 것이냐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은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직후 나왔다. 바이든 후보는 0시 40분께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승리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모든 표가 개표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 위치에서나, 도널드 트럼프 위치에서나 누가 이 선거에서 이겼는지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이후에 백악관에서 별도의 행사를 열어 자신의 승리를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선거 결과에 대해 "경이롭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엄청난게 이기고 있다고 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선거

를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는 한편, 연방대법원으로 갈 계획이라면서 우편투표가 포함된 투표 개표가 중단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6개 경합주 가운데 5개 주에서 앞서고 있거나 사실상 승리를 확정할 것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 3개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12.7%포인트(74% 개표기준), 미시간 7.5%포인트(71% 개표기준), 위스콘신 4.0%포인트(82% 개표 기준) 앞서고 있다. 남부 경합주인 선벨트 3개 주 중 플로리다에서는 승리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문제는 러스트벨트 3개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3곳은 선벨트 3개 주와 달리 우편투표의 신속한 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같이 개표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편투표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사전 현장투표를 한 유권자는 3573만103명,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는 6456만5천735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주장에 대해 CNN방송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거짓된 주장"이라면서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같이 쓰면 가치 UP!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웃는 가치있는 제로페이

우리가치 zeroPay 해요!

제로페이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휴대폰 간편결제 방식

소상공인 혜택
결제 수수료 0% 대, 매출 세액 공제 가능

소비자 혜택
소득공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콜센터 1670-0582
홈페이지 www.zeropay.or.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광주광역시

가맹점 신청 안내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방법
zeropay.or.kr

1 온라인 신청 ▶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속, 가맹점 등록신청 → QR 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설치

2 오프라인 신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비치된 가입 신청서를 작성·제출

신청서 작성·제출 → QR 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설치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가맹점 앱 설치 :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앱 검색 후 설치

소비자 이용 안내

제로페이 이용하는 방법

1 제로페이 결제하기(소비자 촬영 방식)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키트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물건구입 → 앱 실행 → 가맹점 QR키트 촬영 → 금액입력 결제완료

2 제로페이 결제하기(리더기 스캔 방식)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해 QR코드(바코드)를 생성, 판매자가 QR코드를 스캔해 결제

물건구입 → 앱 실행 → QR코드(바코드) 생성제시 → 리더기 스캔 결제완료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